

다양한 현대미술 만나는 '광주 아트페어'

가을, 다양한 미술 장터가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와 올해 처음 시도되는 미디어 아트 특화 장터가 같은 시기에 열린다. 여유가 있다면 작품 한 점 구입 해도 좋겠지만 대체로는 전시도 준비돼 있어 다양한 현대미술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예술장터' 제10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19)가 19일 VIP 프리뷰와 함께 개막한다.

'One Piece, One Peace'를 주제로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3개국 91 갤러리(해외 18개), 79개 작가 부스 등 총 170개 부스에서 6000 점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광주예총이 주관하는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갤러리 부스와 작가 부스가 함께 운영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또 지난해 2개관에서 치러졌던 행사를 올해는 컨벤션 센터 3개관으로 확대해 대규모 행사로 치른다.

특히 올해는 광주 아트페어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국내 최고 메이저급 화랑인 서울 학교재와 박영덕 화랑이 참여한 계 눈길을 끈다. 광주에서는 갤러리 S, 이화갤러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나인갤러리 등 14개가 참여하며 조선희화랑,

'아트:광주:19' 19~22일 DJ센터

13개국 91개 갤러리 6000여 작품 참여
서울 학교재·박영덕 화랑 참여 눈길

AP갤러리 등 서울 22개 갤러리가 미술애호가들을 만난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현존하는 작가 중 최고의 작품 값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슈퍼스타들이 탐내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카우스, 요시모토 나라, 쿠사마 야요이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이우환, 장욱진, 강요배, 윤석남, 김구림, 최욱경 등 현대 미술시장의 동향을 알아 볼 수 있는 핫한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3개의 특별전을 마련했다. 남종 문인화의 태동과 맥을 이어온 빛고를 광주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는 의미로 기획한 '남도수묵전'은 소치 허련부터 의재 허백련까지 이어지는 묵향을 느낄 수 있는 전시로 이번 페어에서 첫 선을 보이는 개인 소장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꾸렸다.

더불어 새로운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신진작가

인큐베이팅을 위한 '청년, 이상(異樣)하고 이상(理想)하라' 전에는 박세희, 윤준영, 박아론 등 5개국 9명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특별전 'Sculpture Project_Art:gwangju'는 전시장 곳곳에 최순임·이기원·정춘표·김승우 등 9명 작가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 기획으로 이 중 미국작가 데이비드 장의 작품은 관객 참여형 대형 인터랙티브 아트로 현대미술 감상 체험 폭을 넓혀준다.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도 열린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의 강의(22일)를 비롯해 임규환(갤러리스트·아트디렉터), 이지현(독립기획자), 성유진(작가), 권성아(ACC 전시팀장), 최순임(작가) 등 6인의 강연이 마련됐다. 그밖에 세계고미술품평가조합이 무료 고미술 감정을 진행하고 도슨트 프로그램, 에바폼 아트 꽃만들기와 비즈공예 선풍제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명함박스이벤트에 참여하면 아트:광주:19 굿즈를 받을 수 있으며 관람 사진을 SNS에 올리면 커피쿠폰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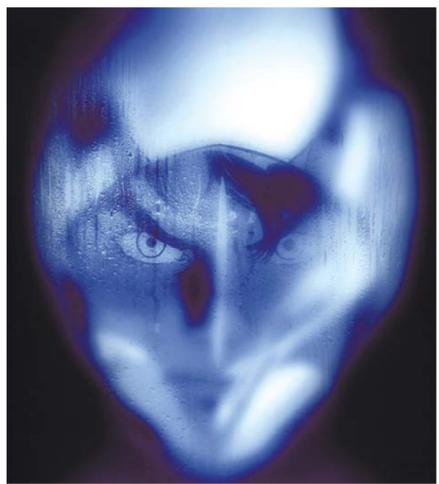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봉수 작 '나는 피노키오다'

아트:광주:19

미디어아트를 위한 특별한 미술장터



이아남 작 'Blue Gatchaman'

'미디어아트 X페어' 20~24일 금호갤러리
비디오아트·영상설치 등...작가와 만남도

'미디어아트'만을 특화한 미술 장터가 열린다.

지역 문화 기업 아트팩토리(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사업 '2019 작가 미술장터'에 선정돼 진행되는 '미디어아트 X페어'가 20~24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2층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작가미술장터'는 미술품 판로 개척과 소장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원하는 행사로 판매 수익금의 전액 작가에게 지급된다.

'미디어아트X페어'는 미디어아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소수의 기관 컬렉션에 의존하는 미디어아트 생태계의 변화와 중저가 미술시장 내 미디어아트 컬렉션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에서 열리는 의미있는 기획이다.

페어에는 박상화, 정운학, 정선휘 등 미디어아티스트 47명(국내 36명·해외 11명)이 참여하며 비디오아트, 영상설치,

평면 등 72점의 대체로운 미디어아트와 에디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판매 작품은 10만원대부터 시작해 100~200만원 대로 구성돼 있다.

본 전시는 기성작가와 루키작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내외 작가의 실험성이 돋보이는 영상작품을 로케이션 상영하는 '미디어아트 미니 시네마존'이 별도로 운영된다. 또 본 전시 이외에도 해와 달의 표면을 산책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터널', 관람객이 직접 영상콘텐츠를 조작하며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해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체험', 미디어아티스트가 직접 싸인한 에디션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운의 '미니옥션' 등도 열린다.

'미술시장 네트워크프로그램'은 두차례 개최된다. 20일 오후 4시에는 '미디어아트x창의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미술문화기획자 윤익,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사업단 정진경 팀장, 박상화 작가가 참여한다. 21일 열리는 '미디어아트x루키데이'에는 조선대 박상호 교수, 해동문화예술촌 양초롱 감독, 미술평론가 조인호 등이 함께 한다.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무료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



'베토벤 교향곡 3번:영웅'

광주시향, 18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향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3번:영웅'을 연다.

김영연 상임부지휘자가 지휘를 맡은 이날 공연은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날은 베토벤 생애 마지막으로 작곡한 오페라 '오베론' 중 '서곡'으로 막을 올리고, 화려한 클라리넷 독주와 함께 베토벤의 낭만주의적 색채가 드러나는 '클라리넷 협주곡 1번'을 채재일과의 협연 무대로 선보인다.

대미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 장식한다. 지난 2016년 BBC 뮤직메거진에서 현역지휘자들의 투표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에 선정된 이 곡은 베토벤의 장에 극복에 대한 의지, 영웅 출현에 대한 기대감 등이 담겼다고 전해지며, 특히 '장송행진곡'으로 불리는 2악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채재일은 줄리어드 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 음악콩쿠르,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으며, 서울시향 클라리넷 수석을 거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다. 전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피아니스트 박수영 리사이틀 무대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피아니스트 박수영이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이날 공연은 오케스트라에 맞춰 3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는 무대로 기획됐다.

이날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곡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노르웨이 자연에 대한 감정과 민족적 색채를 표현한 곡이자 '그리그 사인'으로 불리는 도임부로 유명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무대에 올린다.

피아노 솔로와 재즈 밴드를 위한 협주곡 형식으로 작곡, 클래식 음악에 재즈적 요소를 가미한 거수원의 '렘소디 인 블루'도 연주한다. 연주회에는 뉴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출연, (사)변육지휘자협회 이사장이자 (사)광주오페라단 지휘자 등을 맡고 있는 변육 지휘자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박수영은 전남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해 파리 콘서바토리 국제학교 등을 거쳤다. 성 페테르스버그 챔버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슈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 현재는 호남신학대에 출강 중이며 'CN피아노'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석 초대.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박수영

강성을 광주교육대 교수, 소설 '호랑이 선생님' 출간

선생님과 이어온 52년간의 사랑이야기

강성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장편 '호랑이 선생님' (작가와 비평)을 출간했다.

소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이어온 52년 동안의 사랑이야기가 주제다. 내성적인 주인공 민수가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 사제지간의 인연에 초점을 맞췄다. 솟기 없는 민수가 엄한 선생님을 만나 이후 삶이 조금씩 변한다는 고전적인 내용이다.

강교수는 "요즘 교실이 무너졌다는니,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졌다는니 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지금 이



호랑이선생님

순간에도 어린 제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생님, 담임선생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알고 존경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직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한다.

한편, 강교수는 민주평화통일중앙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등 철학서적과 '땅콩집 이야기' 등 소설집을 펴냈다. /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8일 부산서 '광주건축문화투어'

20일 접수 마감...건축제 등 관람

2019 광주건축문화투어(우수 건축도시 시민 답사)가 오는 28일 부산시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 건축사회(회장 강현구)가 진행하는 이날 투어는 부산영화제협박물관(2017 부산다운 건

축상 공공부문 동상), 도시 재생 사례인 초량 이바구길(2018 부산다운건축상 공공부문 금상) 탐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부산역 일원에서 열리는 부산건축제도 관람할 예정이다.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일반 시민 등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3만원(조식·중식·석식 포함).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전화 및 메일 접수 후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